

해맑음센터, Axis HD 영상 감시 솔루션으로 사각지대 없는 안전한 학교폭력 치유 공간 마련.

24시간 스마트폰 모니터링으로 안심하고 치유하고 학습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고객명:
해맑음센터

소재지:
대전시 유성구

산업분야:
교육

어플리케이션:
보안 및 감시, 원격
모니터링, 절도 예방

미션

'학교폭력'이 우리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과 대책 마련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2013년 7월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동의 한 폐교에 '해맑음센터'라는 이름의 시설이 문을 열었다. 해맑음센터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에게 맞춤형 상담, 교육, 예술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국내 유일의 기숙형 종합지원센터로서, 2013년 7월 교육부와 대전교육청이 함께 설립한 국내 최초의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피해학부모 전용 치유 시설이다. 해맑음센터는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치유받을 수 있는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CCTV를 설치하고 센터 지킴이들이 언제든지 화면을 모니터링해 필요 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했다.

솔루션

그러나 교내에 설치된 CCTV의 화질이 너무 낮아 영상 속 피사체들의 기본적인 식별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한정된 비용으로 사각지대를 모두 커버할 만큼의 고성능 카메라를 새로 도입하는 것도 불가능했다. 해맑음센터의 설립 취지와 고민을 접한 Axis는 학교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는 피

해자들이 건강하게 가정과 학교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환경에서 치유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고화질 영상감시 카메라를 전량 무상제공하기로 결정했다.

결과

해맑음센터는 다양한 기종의 Axis 카메라를 센터 내 적재 적소에 배치하여 피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치유에 집중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했다. 상담실과 공부방, 예술치유실 등이 있는 본관 건물을 포함하여 기숙사 주변과 교사 숙소 및 관사 등 여러 채의 건물 그리고 넓은 운동장까지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는 HDTV 카메라를 설치했다. 특히 해맑음센터의 건축 작업이 본격화되는 시기에 구축작업을 수행함으로써 각종 건축 자재와 집기를 보호하고 직원들의 안전까지 책임지는 역할을 담당했다. 또한 손쉽게 사용 가능한 Axis 카메라 컴패니언 (AXIS Camera Companion) 소프트웨어를 적용,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모드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했는데, 스마트폰에서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되어 한정된 인원으로 넓은 시설과 학생, 교사들의 안전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시 외곽 폐교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안전'

2013년 3월, 대전 외곽의 폐교를 학교폭력 피해자 전용 치유시설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보수작업을 시작한 이래로, 교육계와 지역사회 그리고 해맑음센터의 오픈을 기다리는 학교폭력 피해가족의 공통된 관심사는 '안전'이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만큼 센터 입소 중에 우울증이나 학생들 간의 다툼으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문제가,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을 잘 치유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 것이다.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산중에 위치한 센터를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 역시 중요한 문제였다.

해맑음센터는 상담실과 공부방, 예술치유실, 북카페, 식당 등이 있는 본관 건물 외에도 대강당과 기숙사가 별도의 건물에 자리를 잡고, 교사들의 숙소 및 관사 등 여러 채의 건물이 흩어져 있는 구조다. 또 드넓은 운동장과 텃밭 등 학생들의 생활공간이 매우 넓게 퍼져 있다. 주중에는 학생들의 생활공간 곳곳을 주야로 안전하게 관찰해야 하고, 주말에는 숙직자 1~2명이 전체 시설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카메라의 영상품질 외에도 안정된 네트워크 저장, 관리자 용도에 맞는 영상모드 제공, 스마트폰을 통한 영상 관리 등 다양한 성능과 기능이 요구되었다.

Axis 한국지사는 마케팅팀과 기술팀이 해맑음센터 건축 현장을 방문해 사각지대가 없는 모니터링 환경을 구축할 방안을 면밀히 검토했다. 해맑음센터의 구조와 각 촬영 지역의 환경 등을 고려한 결과, AXIS P3364-VE, AXIS P1344-E, AXIS M3005-V, AXIS M1014, AXIS M1044-W 등 모두 11대의 HDTV 카메라가 설치되었다. 최고 200만 화소(2메가픽셀)를 지원하는 고성능 카메라들이다.

Axis 한국지사는 해맑음센터 건축이 한창이던 시기에 이미 영상감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센터 건축 과정에서 입고된 각종 건축자재 및 집기 등을 보호하고, 현장에서 숙식을 하고 있는 학가협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영상감시 모니터링 시스템이 최우선으로 갖춰져야 한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Axis 임보경 마케팅 팀장의 얘기다. 실제로 오래된 폐교에서 대규모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고 고가의 건축자재들이 쌓이기 시작하자 불청객들이 작업 현장에 서성거리는 일이 적지 않았는데,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CCTV 촬영중"이라는 안내판을 설치한 뒤로는 더 이상 불청객들을 볼 수 없었다고 한다.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안전 관리의 일등공신

해맑음센터가 정식으로 문을 연지 1년이 지난 지금, 해맑음센터 교무실을 들어서면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50인치 대형TV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다. 11개의 감시 카메라가 보내오는 영상을 교사들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기 위한 것이다. 감시 카메라 구축 초기에는 필요할 때만 개별 PC의 관리프로그램에서 확인했는데,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TV를 설치했다고.

고해상도 영상감시 모니터링 시스템은 어떤 효과를 가져다 줬을까? 우선 카메라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교사와 학생들 모두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고 있다. 해맑음센터 조정실 센터장은 "해맑음센터에 올라타가 없다 보니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쉽게 드나들 수 있다. 감시 카메라가 있고 없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면서, "최근에 아이들과 운동장에 텐트를 치고 캠핑을 했는데, 감시 카메라로 센터 주변을 수시로 모니터링할 수 있어 별 걱정 없이 행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네트워크 감시 카메라는 한정된 인원으로 시설을 관리하는 데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주말에 학생들이 집으로 돌아가면 교사 1~2명만 남을 때도 있는데, 곳곳에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으니 든든하다"는 것이 운영지원팀을 총괄하는 조윤채 팀장의 얘기다. 학생들 역시 센터 곳곳에서 24시간 모니터링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니 충동을 자제하고 행동을 조심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컴퓨터보다 더 편한 스마트폰 모니터링

감시 카메라 구축 당시 Axis는 최대한 추가 비용이 들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Axis 안상근 차장은 "카메라를 설치할 때 스위치에서의 거리와 사각지대를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고 말한다. 스위치에서 100미터 거리 이내에 카메라가 설치돼야 점프용 스위치 등 추가 설비 없이 PoE 스위치만으로 안정된 전력을 공급하고 영상을 전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카메라를 무료지원한 뒤로도 Axis가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는 점에 해맑음센터를 고마움을 나타내고 있다. 센터 측은 "카메라 설치 뒤 외부 휴게실 쪽에 사각지대가 생겨 카메라 각도를 조절해야 할 때는 전화통화만으로도 교사들이 충분히 작업을 할 수 있을 만큼 친절하게





“Axis의 고성능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 교사나 학생 모두 심리적으로 안심하고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센터에 입소한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을 단순히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환경에서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안전한 교육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했고 Axis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몸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건강한 삶의 에너지를 찾는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맑음센터 조윤채 운영지원팀장

설명을 해 주었다”고 말했다. 카메라 사용 중 문제가 생겼을 때 즉시 기술인력을 파견해 점검을 하고 카메라를 교체해주는 점도 만족스러운 부분이라고.

해맑음센터에 구축된 영상감시 모니터링 시스템은 AXIS 카메라 컴패니언(Axis Camera Companion) 소프트웨어와 결합되어 더욱 큰 가치를 만들어낸다. AXIS 카메라 컴패니언은 무료 소프트웨어이지만, 카메라를 16대까지 연결할 수 있고 쉽게 세팅하여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솔루션. 조윤채 운영지원팀장은 “주말에 외출했을 때 스마트폰에서 수시로 모니터링을 한다. 혼자 당직을 설 때도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린다 싶으면, 일단 스마트폰으로 감시 카메라 영상부터 확인한다”면서, “사용하기도 매우 쉽고, 버릇처럼 자주 접속하다 보니, 스마트폰 모니터링이 더 편할 때도 있다”고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다.

교육 시설 안전 점검에서 최고 평가 이끌어내

해맑음센터에 설치된 Axis 영상감시 모니터링 시스템은 최근 교육당국이 실시한 안전점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세월호 사고 직후 전국의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안전점검이 있었는데, 해맑음센터는 교육부가 지원하고 전국의 교육청과 학가협이 위탁협약을 맺어 운영되고 있는 시설이다 보니 교육부, 대전교육청, 교육개발원 등 각급 기관에서 여러 차례 점검을 받게 됐다. 조정실 센터장은 “요소요소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24시간 모니터링한다는 사실에 점검 나온 공무원들이 칭찬을 많이 하더라”면서, “TV로 모니터링 영상을 보여주자 “무슨 카메라인데 이렇게 화질이 좋냐? 어느 회사 제품이냐?며 깜짝 놀라더라”고 전했다. 이처럼 영상감시 모니터링 시스템은 안전점검에서도 좋은 평가를 얻는데 단단히 한 몫을 했다. 조윤채 팀장은 “교육연수원 주관 전국 학교폭력 우수교원 연수 때도 선생님들이 TV 화면을 보면서 “직접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화면이 깨끗하다”며 부러워한다”고 말했다.

해맑음센터는 앞으로도 Axis 한국지사와 협의해 영상감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학생들이 센터 밖

으로 나가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어 주차장에서 교문으로 나가는 길목 등 새로운 사각지대를 빈틈없이 메워 나가겠다는 것이다.

Axis 한국지사 측은 “기업의 첫 번째 목표가 수익창출이고, 특히 Axis는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매우 엄격한 가격정책을 유지하는 기업이다. 하지만, 회사가 보유한 기술과 솔루션이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의 치유와 건강한 복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최대한의 지원을 제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 보자고 뜻을 모았다”고 취지를 설명하며, “국내 최초, 유일의 학교폭력 피해자 전용시설이 안전하게 운영됨으로써 해맑음센터가 온전히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에만 힘을 쏟을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학교폭력은 정부가 4대악의 하나로 지칭할 만큼 꼭 해결돼야 할 사회적 범죄 중 하나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학교폭력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충분한 치료를 받고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 될 것이다. Axis커뮤니케이션즈의 해맑음센터 지원사례는 감시와 보호의 사각지대에서 폭력으로 고통 받던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몸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건강한 삶의 에너지를 찾는 데 일조했다는 점에서, 영상감시 시스템이 단순한 ‘감시’를 넘어 폭력 없는 안전한 교육 환경을 만드는 첨병이 될 수 있음을 잘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인터뷰] 조윤채 해맑음센터 운영지원팀장

영상감시 시스템이 해맑음센터 운영에 기여하는 부분은 어떤 것인가?

센터가 도심에서 떨어져 있다 보니 안전 문제에 많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 고성능 카메라가 구축되어 있어 교사나 학생 모두 심리적으로 안정이 많이 된다. 교무실 TV로 11대의 카메라를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어 센터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교사들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주말에 교사 1~2명이 당직을 설 때도 카메라가 있으니 든든하다.

안전을 위한 '감시' 외에 어떤 효과가 있나?

수업시간인데 복도나 운동장에 아이들이 있으면 즉시 조치를 할 수 있다. 속상하고 우울할 때 교사에게 얘기하지 않고 몰래 교실을 벗어나 벤치에 앉아 있는 아이들이 있다. 교사가 TV 화면에서 보는 즉시 달려나가서 상담을 하고 마음을 풀어준다. 적은 인원으로 학생들에게 최대한의 지원을 하는데도 큰 힘이 된다.

학생들이 감시당한다는 불만을 갖지는 않는지?

전혀 없다. 농담처럼 "해맑음센터는 사각지대도 없어"라고 말하는 데서, 안심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진다. 24시간 모니터링한다는 것을 알게 되니, 한 번 더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는 효과도 있다. 아이들이 가볍게 다뤄서 선생님이 중재를 하는데, '누가 먼저 때렸냐?'를 서로 우기는 상황이 있었다. 저장된 영상으로 확인시켜줬더니, 그 뒤로는 아이들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안전 점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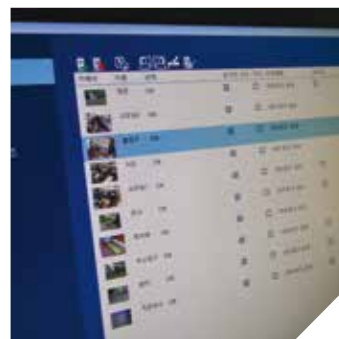
세월호 사고 이후 교육시설 안전점검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 점검 때마다 공무원들이 사각지대 없이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사실에 한번 놀라고, HD 방송처럼 깨끗한 화질에 또 한번 놀란다. 국내에서 처음 생긴 시설이다 보니 여기저기서 신경을 많이 쓰기 마련인데, 영상감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보고 나면 칭찬 일색이다.

운영이나 기술지원에 불편함은 없나?

관리 솔루션(Axis 카메라 컴패니언)이 매우 사용하기 쉬워서 언제든지 원하는 모드로 영상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스마트폰 접속으로도 고화질 모니터링이 가능한데, 센터 안팎에서 워낙 자주 이용하고 다루기도 쉽다 보니,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보는 것이 더 편하게 느껴질 정도다. Axis 한국지사가 처음 구축할 때부터 최대한 추가비용이 들지 않도록 설계를 잘 해주었고, 그 이후에도 기술지원 및 제품교환 등이 신속히 이루어져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앞으로 계획이나 바람을 얘기해달라.

1년 넘게 운영을 하다 보니 조금씩 사각지대가 나타나게 된다. 이런 부분들을 Axis와 잘 협의해서 보강해 나가려고 한다. 아이들이 고성능 영상감시 환경에 안심하는 것으로 보면서 '일선학교들에 이렇게 고화질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으면, 이 아이들이 장기간 끔찍한 폭력에 노출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느낀다.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의 안전 관리에 좀 더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고성능 영상 보안 시스템은 '감시'가 아닌 안전한 교육 환경의 열쇠입니다."

해맑음센터 조윤채 운영지원팀장